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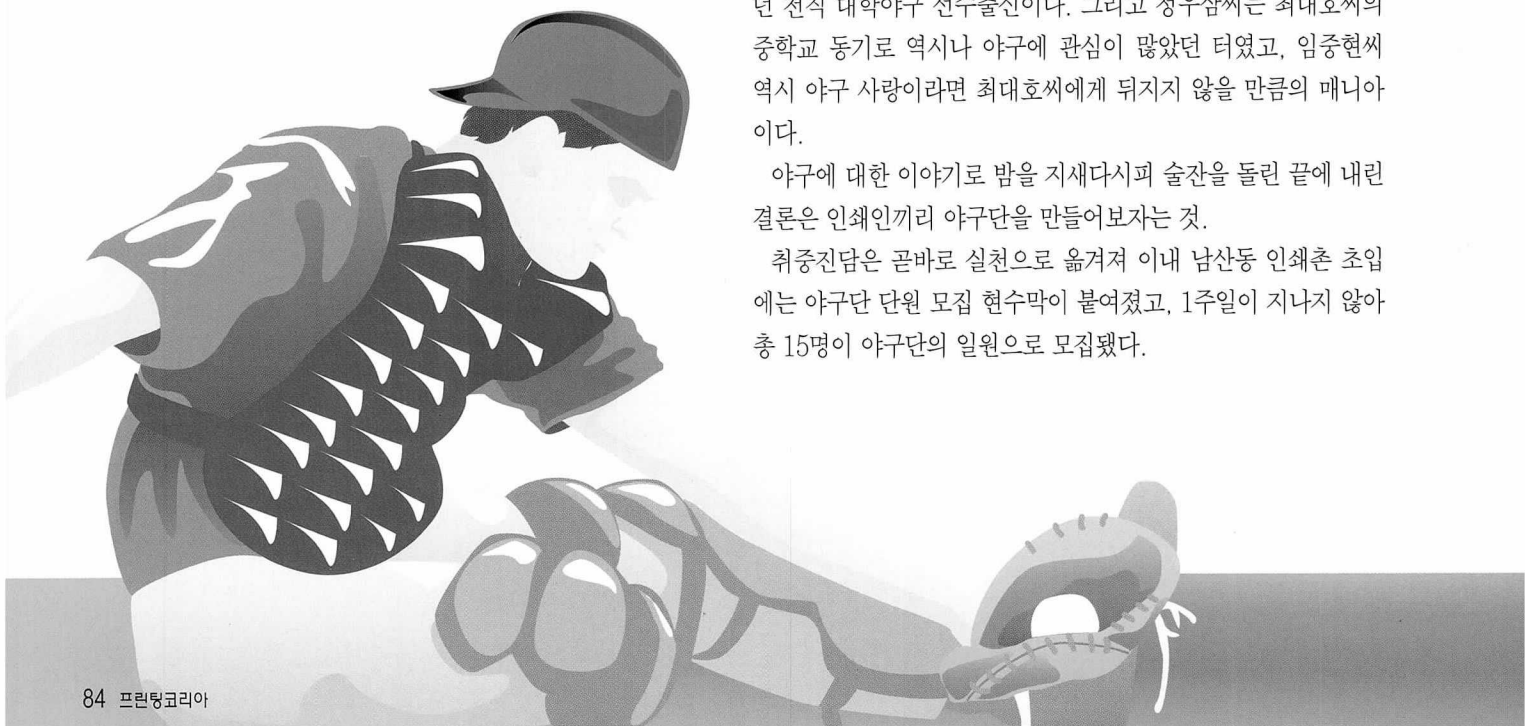
야구를 위해 뭉친 대구 남산골 인쇄인들

2002년 3월. 인쇄업체가 몰려 있는 대구 남산동의 한 술집에 인쇄업 및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정우삼(CMYK 야구단 단장), 최대호(CMYK 야구단 감독), 임중현 이렇게 세 사람이 모였다. 이날 술자리에선 인쇄 외에도 공통된 화제가 있었으니 다름 아닌 야구였다.

대구의 대표적인 인쇄촌인 남산동에서 인쇄 및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이들이 인쇄가 아닌 야구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들 인쇄만큼이나 야구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최대호씨는 대학 시절까지 140km/h를 웃도는 위력적인 투구를 보였던 전직 대학야구 선수출신이다. 그리고 정우삼씨는 최대호씨의 중학교 동기로 역시나 야구에 관심이 많았던 터였고, 임중현씨 역시 야구 사랑이라면 최대호씨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의 매니아이다.

야구에 대한 이야기로 밤을 지새다시피 술잔을 돌린 끝에 내린 결론은 인쇄인끼리 야구단을 만들어보자는 것.

취중진담은 곧바로 실천으로 옮겨져 이내 남산동 인쇄촌 초입에는 야구단 단원 모집 현수막이 붙여졌고, 1주일도 지나지 않아 총 15명이 야구단의 일원으로 모집됐다.



야구단 이름은 'CMYK'. 4색이 모여서 조화로운 색이 만들어지듯 15명이 모여서 조화로운 모습을 보이자는 뜻에서 'CMYK 야구단'으로 결정됐다.

서울에서도 참여

축구는 축구공 하나와 운동복, 축구화 무릎보호대 정도가 장비의 전부이지만 야구에는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눈에 띄는 장비만 해도 9개의 글러브와 4~5개의 알루미늄 배트, 운동복, 모자, 신발, 야구공, 포수용 별도 장비 등 상당히 많은 장비가 투입된다.

장비 가격도 만만치 않다. 일반 야수들의 글러브만 해도 대략 30여 만원이 소요되고 포수용 미트는 40만원을 넘는다. 방망이 가격도 50만원을 넘어서는 등 부대 비용이 만만치 않다. CMYK 야구단의 경우 2002년 시즌을 보내면서 600만원 정도의 지출이 있었다.

소요 비용은 회원들에 대한 각축이 원칙이지만 풀림지류 임중현 사장을 비롯해 지역 인쇄사 및 관련업체 사장들이 내주는 후원금으로 충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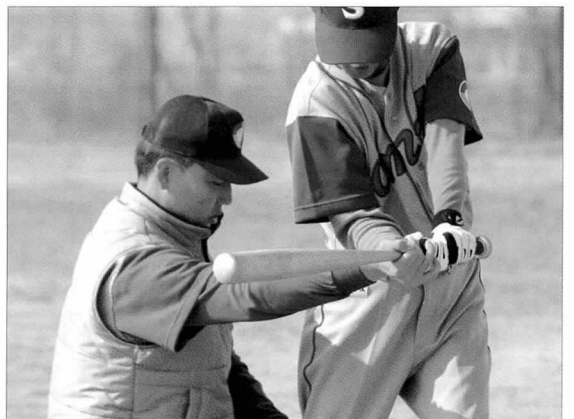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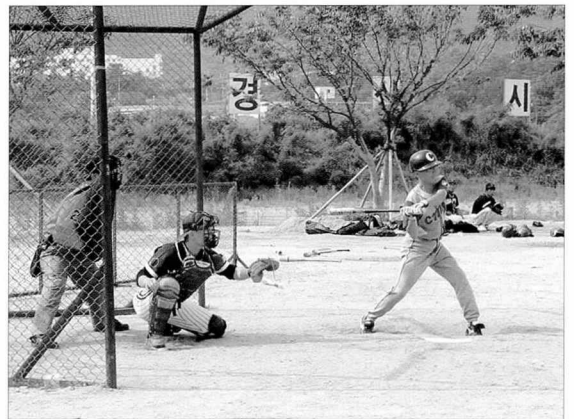
특히 임중현 사장의 경우는 자신이 대구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서울에서 대구까지 내려와 경기에 참가하는 열의를 보여주고 있다.

대구에 있는 단원들의 야구에 대한 열정도 임 사장에 뒤지지 않는다. 정우삼 단장과 최대호 감독의 경우 연습경기는 한 두 번 빠진 적이 있지만 리그 경기에는 한번도 빠지지 않고 있는 열성파이다. 두 사람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선수들은 집안의 대소사에 얼굴만 내비치는 한이 있더라도 될 수 있으면 야구경기만은 빠지지 않는단다. 결혼식이라도 있는 날이면 양복 외에도 차안에 운동복을 넣고 다니면서 결혼식이 끝나기가 무섭게 경기장으로 달려온단다.

야구에 대한 이러한 열정은 CMYK 야구단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힘이다.

즐기는 야구! 포기는 없다!

처음으로 리그에 참가한 2002년의 경우 팀 결성 일주일만에 단 한번의 연습 경기 끝에 정식 리그에 참가했다.



물론 대학 야구선수 출신 최대호 감독과 중학교까지 야구선수 생활을 한 한부근씨가 있긴 했지만 9명 전원의 비슷한 수준을 요구하는 야구의 특성상 훌륭한 성적을 내지 못했다. 한 군데라도 구멍이 생기면 수습할 수 없는 야구의 특성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지난해 15명으로 출발한 CMYK 야구단은 올해 3명의 단원이 빠져나갔고, 6명의 선수를 새로이 팀에 합류했다.

특히 올해 입단한 6명은 다들 아마야구 경험이 있는 선수(?) 출신들이다. 지난해 4부 리그 16개팀 중 13위라는 부진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을 3부 리그에서 출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CMYK 야구단의 야구에 대한 열정은 대구 취재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남부 지방에서 시작된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인 6월 끝자락에 대구시 서구에 위치한 중리중학교를 찾은 것은 CMYK 야구단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총 18명의 단원 중 평균 80%의 참석률을 자랑한다는 야구단이었지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4명의 인원이 서서히 몸을 풀고 있었다.

"어떡합니까! 매번 80%는 참석하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집안 일들이 많아 가지고 참석률이 저조하네요. 아마도 직접 경기장으로 올 것 같습니다"

멀리서 취재를 온 기자에게 보여주기 민망한 꼴이라도 들킨 듯 타격 연습을 하고 있던 정우삼 감독이 겸연쩍어 한 마디 내 던진다.

정우삼 감독과 기자의 인터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운동장에선 최대호(35 디자인호야 대표) 감독과 야구단 최 고령자인 홍순양(43 애드웨이 대표)씨의 힘겨운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총 30개의 외야 평고를 받아내야 하는데 40이 넘는 홍사장이 나잇살을 어찌지 못하고 5m를 채 움직이지 못하는 바람에 이를 질책하는 최 감독의 목청이 자꾸만 높아만 가는 것이다.

30여분 가량 이어진 훈련에 지친 홍사장은 이내 수도가로 달려가 수도꼭지에 머리를 대고 틀어놓은 물줄기를 잠깐 줄을 물렸다.

"어때요. 감독의 처사가 너무 가혹하진 않나요?"

"아유~ 이렇게 라도 땀 흘리는 게 어디 예요. 남들은 운동 못 해서 난리인데 "

홍씨의 힘들어하는 모습에 우병길씨가 수박을 불쑥 내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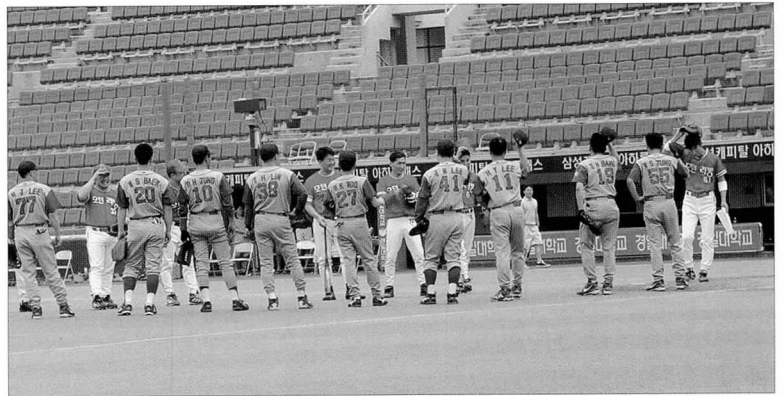
"날 더워 죽겠는데 이거라도 쪼개래요"

야구장 가는 길엔 굳이 우씨가 아니라도 누군가는 단원들의 먹거리를 들고 나타난다. 이날만 해도 우씨 외에도 임중현씨가 불고기를 싸들고 경기장에 나타났다.

4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한 경기는 앞 경기가 미루어지면서 자꾸만 늦어져 5시가 넘어서야 시작했다.

상대 팀은 지난해 3부 리그 상위에 랭크된 영남 Hawks로 이번 시즌에도 4승2패로 리그 4위를 달리고 있는 강팀이다.

이에 비해 CMYK 야구단은 지난 시즌 4부 리그 13위라는 초라한



야구단명단

정우삼	남문인쇄 영업부장	포수
최대호	디자인호야 대표	유격수
우병길	길기획 대표	1루수
임승률	승재기획 대표	투수
정도현	동방기획 대표	중견수
임중현	풍림지류 대구 지사장	투수
조삼기	C.I.A 실장	우익수
윤원석	남문인쇄 직원	우익수
한부근	금강에드컴 부장	2루수
홍순양	애드웨이 대표	1루수
방정훈	대지지류 부장	투수
우홍배	동방기획 대표	3루수
이정면	열린인쇄 대표	투수
백운식	지성지류 대표	좌익수
이호진	디딤맥 대표	2루수
최성윤	열린인쇄 직원	좌익수
임중권	풍림지류 대표	투수
이호용	두성종이 대구지사 과장	유격수





아마 3부 리그서 맹활약

(?) 성적을 낸 바 있으며, 이번 시즌에도 2승 4패로 17개 팀 중 11위로 상대 팀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

하지만 프로야구 선수들이 아닌 이들의 야구는 승률, 팀 상대 전적은 중요하지 않는 듯 했다. 오직 야구를 즐기는 것일 뿐 승부는 큰 의미가 없었다.

2회 12대 1로 뒤진 상황에서도 '아마에서 10점은 점수 차이도 아니다'라는 정우삼 감독의 말을 뒷받침이라도 하듯 3회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집안 일로 늦게 도착한 선발진이 본격 투입되고, 4회에는 올 시즌 2개의 홈런을 기록하고 있는 최대호 감독까지 투입된 데 힘입어 14대 11까지 점수 차를 줄였고, 심판의 일몰 게임 선언으로 승부의 향방은 다음으로 미루어졌다. 단원들은 이날 11점차 점수를 줄여가는 짜릿한 한편의 드라마를 마음껏 즐겼다.

야구를 즐기는 것은 전직 야구 선수 출신인 최대호 감독도 마찬가지이다. 투수 출신인 최대호 감독은 '고등학교이상 선수 출신은 해당 포지션에서는 경기에 땔 수 없다'는 리그 규정상 투수로는 못 뛰지만 야수로 나서면 타자로 땔 수 있다. 하지만 최 감독은 모든 선수들이 즐기는 야구가 되어야 한다면 좀처럼 선발로 경기에 나서지는 법이 없다.

4회에야 이루어진 최대호 감독의 출장도 이러한 배려가 한몫 한 탓이다.

〈이용우 기자〉

